

## 스웨덴 여성영화종사자의 인권제도에 관한 연구\*

홍 세 영\*\*

본 연구는 권력자원론과 젠더주류화 관점에서 스웨덴 여성영화종사자 인권제도를 분석하였다. 2014년부터 스웨덴은 세계 최초 페미니스트 정부로 명명하면서 적극적으로 젠더주류화 전략을 모든 공적 영역에 수행하고 있다. 또한 2017년부터 활발하게 전개된 스웨덴 미투운동은 스웨덴 여성조직을 다시 하나로 묶어주면서 여성의 권력을 세력화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미투운동은 영화산업분야에서 활발히 전개되었으며 스웨덴 여성 인권을 제도화하는데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다. 미투운동 이후 스웨덴 영화산업계에서는 젠더주류화 전략을 더욱 강화시켰다. 젠더주류화 전략을 통해 많은 여성들이 영화산업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면서 여성의 권리가 반영된 영화를 제작하고 이 분야에 양성평등 수준을 높이고 있다. 우리사회가 여성영화종사자들의 인권을 높이기 위해서는 스웨덴처럼 성차별의 원인을 권력으로 인식하고 남녀의 권력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권력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여성영화종사자들은 연대를 통해 정치세력화를 이루고 다른 여성조직과도 연대할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한국에서 여성의 정치세력화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정부는 효과적인 젠더주류화 전략을 실행해야 한다.

**주제어: 스웨덴 여성영화 종사자, 권력자원론, 젠더주류화, 여성의 정치 세력화, 여성인권**

\* 이 연구는 2018년 한국 스칸디나비아학회 신진연구자 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았음

\*\* 안양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 1. 서론

양성평등(Gender Equality)은 여성을 위한 인권이며, ‘UN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아젠다의 5번째 목표(United Nations’ fifth goal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로 국제 사회에 주요 이슈이다. 우리사회 곳곳에 여성과 남성간의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 중 영화 산업은 양성평등을 위한 개선이 특히 요구되는 분야이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2017년부터 시작된 미투운동(MeToo)이었다. 당시 미국의 한 여배우가 자신이 당한 성폭력 사실을 폭로하였고, 이 내용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바로 해시태그 운동 미투운동(#MeToo; 나도 당했다)이다.

이후 국내에서 모 여검사가 유사한 사례를 폭로하면서 한국의 미투운동을 촉발시켰다. 미투운동은 한국사회에 은폐된 남녀 간의 불평등한 권력구조를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주었다. 그리고 여성영화산업분야에 성차별문제가 특히 심각하다는 것이 제기되면서 이들의 인권 문제가 가시화되었다. 사실 영화산업 분야에 성차별은 고질적으로 존재했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무시되고 정당화되었다.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영화산업에 종사하는 여성과 남성의 비율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고용조건이나 주요 업무가 남성에게 유리하게 구조화되어 있으며, 여성의 성폭력이나 성희롱이 심각하게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김동식 외 2018).

비슷한 시기 스웨덴도 미투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한국과 유사하게 스웨덴에서도 다른 분야보다 영화산업계에서 성차별이나 성폭력 등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미투운동을 계기로 은폐된 폭력을 가시화시킬 수 있었다. 스웨덴 여성영화종사자들은 연대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으며, 양평평등을 반영한 영화를 더욱 많이 제작하고, 다른 분야의 여성조직과 연대하여 양성평등을 위한 제도들을 강화시켰다. 여성연대나 정치세력화 등은 여성의 권력자원이다. 권력자원은 권력 관계를 형성시키는 주요 요소이다. 한국과 스웨덴이 미투운동이라는 유사한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권력자원의 차이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권력자원(Power Resource Theory)의 관점에서 스웨덴 여성영화종사자의 인권제도를 분석하는 것이다. 스웨덴은 여성의 권력자원이 제도화되면서 여성의 인권과 권리가 다른 국가보다 높은 수준이다. 양성평등이 높은 스웨덴 사회를 스웨덴 복지 모델 이외의 또 하나의 ‘스웨덴 모델’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여기서 권력자원 관점에서 스웨덴에서 어떻게 여성영화인들의 정치적 세력화를 통해 권력자원을 형성하였으며, 젠더주류화 전략을 통해 여성영화종사자의 인권을 제도화했는지 그 과정과 양상을 탐색하고 시사점을 도출해보겠다.

## 2. 이론적 논의

### 2.1 여성의 권력자원과 인권

권력자원론(Power Resource Theory)은 복지국가를 설명하는 주요 이론으로 제도분석이나 국가별 복지제도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사용되었다(Huber and Stephens, 2000; Esping-Andersen, 1999; Korpi, 1983). 코르피(Korpi, 1983)에 따르면 권력자원의 핵심은 누가 어떤 권력자원을 어떻게 얼마나 소지하느냐가 복지국가 형성과 계급간의 관계가 변화된다는 것이다. 코르피(Korpi)에 따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급은 자본가와 노동자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둘 사이에 불평등한 권력관계로 자본가에 의한 노동자의 착취가 발생되었다. 여기에 내재된 권력관계는 자본가가 생산수단이라는 경제적 자원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수단이 없는 노동자에게 상당히 불리하였다. 그래서 마르크스(Marx)를 비롯한 사회주의자들은 평등한 사회를 위해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노동의 착취와 소외는 사유재산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혁명을 통해 사유재산을 없애고 생산수단을 사회화함으로써 진정한 평등사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권력자원론은 1990년대 페미니스트 학자들 사이에서도 차용되기 시작하였다(O’conner, 1998; Orloff, 1993; Lewis, 1998). 이들은 기존의 권력자원론이 복지국가 내에서 젠더 관계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제기하였고 오히려

복지국가가 불평등한 남녀관계를 고착화시키는 권력자원으로 역할을 한다는 데 주목하였다. 올로프(Orloff, 1996)는 복지국가가 사적영역에서 공적영역으로 가부장적 역할을 전환시켰으며, 복지국가의 젠더 위계구조와 불평등을 양산하는 것을 밝혔다. 기존의 학자들은 복지국가가 평등을 이룩하기 위해 시장과 사회적 힘을 수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와 같은 제도를 통해서 그 책임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복지체제는 젠더관계를 형성화고 이원화시킨다. 복지제도로 인해 여성은 가정주부로 노동자인 남성에게 의존하는 존재로 만들고 복지의 수혜자인 남성은 완전한 시민권자로 남편의 지위에 따라 복지수급 내용이 달라지는 여성은 불완전한 시민권자가 되었다. 여기의 주요 원인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열등한 권력으로 보았다(Borchost and Siim, 1987; Hernes, 1987). 따라서 많은 페미니스트들은 은폐되고 억압적인 가부장적 복지국가를 수정하기 위해서 여성의 권력자원인 여성의 정치세력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Walby, 2001).

한편 홉슨(Hobson)은 여성의 정치적 자원이 남성과 다르다는 것에 주목한다. 여성은 비공식적 영역에 머무르면서 조직화나 응집력이 약하다는 것이다. 즉 권력이 분산되어 있으며, 중산층 여성과 노동계급의 여성의 이해관계 또한 다르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의 가치로 묶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에 홉슨(Hobson)은 권력자원을 위해 하향식접근방식의 세력화(Top-down)와 가치 통합을 요구한다. 하향식접근방식의 세력화는 국가 페미니즘으로 정부나 국가 기관, 정당으로 진입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 전략은 여성운동이 국가기관으로 진출하여 제도화된 권력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 정책이 젠더주류화 방식의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홍세영, 2010). 국가 페미니즘은 남성의 정치적 권력자원과 다른 전략으로 상대적으로 약한 조직력과 노동조합의 참여율에 대한 보완으로 여성이 국가가 경제 분야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여성의 관점이 반영된 제도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즉 모든 영역의 중요한 정책 결정과정에 젠더주류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최성은·우명숙, 2011).

## 2.2 젠더주류화와 복지국가

젠더주류화(Gender mainstream)는 오늘날 양성평등 정책의 토대가 되는 패러다임이자 전략이다. 이 용어는 1985년 나이로비 유엔 3차 여성대회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1995년 북경에서 열린 ‘제 4차 UN 여성대회’에서 여성정책의 핵심 이론으로 채택되었다. 젠더주류화에서 젠더(Gender)란 생물학적성(Sex)과 구별되는 의미로 사회적인 여성과 남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주류화란 주류가 아닌 사람이나 사상을 주류로 만드는 것이다. 기존의 여성중심접근(Women In Deveopment; WID)이나 젠더중심접근(Gender And Development; GAD)이 젠더 평등을 달성하는데 한계로 지적되면서 젠더주류화 전략이 채택된 것이다. 1960년대 국제적인 여성전략으로 처음 만들어진 WID는 여성이 남성처럼 동등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여성의 경제권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 두 번째 전략은 GAD이다. 이 전략은 WID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동등’보다 ‘차이’에 초점을 두면서 여성이 남성과 욕구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여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 두 접근이 여성의 욕구에 한정되어 있다 점을 지적하고, 여성에 대한 불평등이 특정 영역이 아닌 모든 도처에 구조화되어 있다는 인식하에 ‘전환’ 전략을 제시한다. 젠더주류화 전략의 핵심은 기존의 동등과 차이의 접근이 아닌 ‘전환’이다(김경희·최혜진, 2013; 정인경, 2012; 허라금, 2008).

젠더주류화 전략에서 양성평등은 최고의 목표이자 장기적 전략으로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기술적이고 제도적인 과정을 요구한다. 젠더주류화는 국가를 포함한 공공영역과 민간 조직영역, 중앙과 지방 정책, 서비스와 영역별 프로그램 등 양성평등을 통합시키는 것이다. 결국 이를 통해 차별적 사회제도, 법, 문화적 가치 등이 양성평등을 위한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다.<sup>1)</sup> 기존의 공공 정책은 사회의 지배집단의 욕구에 기초하고 있으며 지배집단의 대다수가 남성이다. 젠더주류화 전략은 남성과 여성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욕구를 통합하는 것이다. 젠더주류화는 공공정책, 프로그램, 법 등을 개선시켜 자원의 효율적인 할당을 보장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사회는 정의로워지고 지속가능한 사회가 될 수

1) <https://www.unwomen.org/en/how-we-work/un-system-coordination/gender-mainstreaming>

있다.)

젠더주류화 전략의 핵심적인 도구는 성별분리통계(Gender-Disaggregated statistics), 성별영향평가(Gender impact assessment), 성인지 예산(Gender responsive budget)이다(이은아, 2016; 정인경, 2012). 통계는 사회현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기초자료이다. 성별분리통계는 성별 평등한 정보 및 지식을 생산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정인경, 2012). 성별영향 평가는 법령, 계획, 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 여성과 남성의 특정한 욕구가 잘 반영되었는지 정치사회경제 모든 분야에 남녀의 격차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젠더관계를 밝히는 것이다(김수완·류연규, 2018). 성인지 예산은 예산 편성과정 중에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예산이 양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 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특히 성별영향 평가와 성인지 예산은 예산과 정책에 내재된 성 불평등한 요소를 드러내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도구로 평가를 받고 있다(정인경, 2012).

### 2.3 연구방법

상기한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와 연구 모형을 제시한다.

첫째, 스웨덴 여성의 권력자원의 형성과정은 무엇인가?

둘째, 스웨덴 여성영화종사자의 정치세력화 과정은 무엇인가?

셋째, 스웨덴 젠더주류화 전략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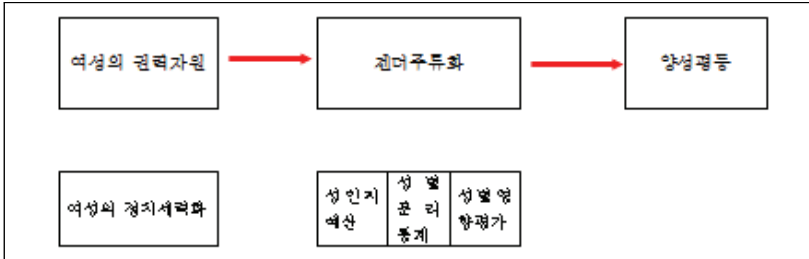
넷째, 스웨덴 여성영화종사자를 위한 젠더주류화 전략은 무엇인가?

---

2) <https://www.coe.int/en/web/genderequality/what-is-gender-mainstreaming>

3) <https://www.kwdi.re.kr/center/gb/intro.do>

<그림 1> 연구 모형



### 3. 스웨덴 여성의 권력자원과 여성영화 종사인들 정치세력화 과정

#### 3.1 스웨덴 여성의 권력자원 형성과정

스웨덴 여성의 권력자원 형성은 대략 3차 페미니스트 운동을 통해 이루어졌다. 1차 페미니스트 운동은 1800년대부터 1900년대 초 이다. 최초의 여성 조직은 1819년 소피 알버스틴 공주(Sophie Albertine)와 상류층 여성들에 의해 만들어진 ‘Välgörande fruntimmersällskapet’라는 자선단체였다. 이 조직은 빈곤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1934년까지 유지되었다. 이 단체는 최초로 여성이 조직화하여 사회를 개혁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급진적이었다. 이 후 당대 지성인이었던 여성 문인들도 조직화하기 시작하였다. 1859년 스웨덴과 노르딕 국가의 첫 번째 여성 잡지인 일명 ‘가정 잡지(Tidskrift för hemmet)’ 를 발행했는데 이는 여성운동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많은 여성들은 문인으로서 자신의 소설 속에서 낙태, 미혼여성의 권리, 여성의 보편적 권리 등 당시 민감한 사안을 문학적 소재로 다루었다. 1880년대에는 문학 속에 비치는 여성의 성적 이중 잣대에 대한 여성의 역할과 매춘부 제도에 대해서 사회적인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유사한 시기에 여성의 공민권과 참정권 획득을 위한 운동도 전개되었다. 1873년 기혼여성 재산권 협회(Married Woman’s Property Rights Association)가 설립되었다. 이 조직의 목적은 기혼여성이 남성의 지위에 따라 재산이나

신분이 종속되는 권리(Coverture)를 폐지하는 것이었다. 1902년부터 전국 여성 참정권 협회가 창설되면서 여성의 참정권 획득과 완전한 시민으로서 새로운 권리를 위해 노력했다.<sup>4)</sup> 결과적으로 여성은 1919년에서 1921년 사이 보편적 참정권을 획득하였으며 1920년대 법적으로 결혼법(Marriage Code)을 통해 재산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획득하였다. 여성은 공무원(Civil servant)이 될 수 있었으며, 인문계 고등학교(Grammar School)에 입학이 허용되었다. 그리고 여성들은 많은 직업의 기회를 제공받게 되었다(Svensson and Gunnarsson, 2012).

2차 페미니스트 운동은 1960년대와 90년대이다. 1960년대부터 스웨덴은 여성과 남성에 대한 사회적 차이에 대한 공적 인식이 증가하였다. 당시 스웨덴의 경기 호황은 여성 노동력이 필요했고 당시 가정주부로서의 여성의 주요 이미지는 의문시되었다. 그러면서 성별역할에 대한 연구가 면밀히 수행되었고 결론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학습되고 여성과 남성에게는 다른 기대와 역할이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것으로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데에 논의로 모아졌다. 이러한 비판적 담론은 여성운동을 더욱 정교화하게 만들었으며 이들의 목소리는 다양한 조직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여성조직들은 동등한 급여, 주간보호, 선택(pro-choice)을 요구하였다. 당시 양성평등(Jämställdhet)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1972년 재임 중 이었던 수상 올로프 팔메(Olof Palme)는 공식적 연설에서 정부정책의 모든 공식적 영역에 양성평등을 제도화할 것을 약속하였다. 팔메는 동등한 기회를 위한 여성의 투쟁을 노동계급에 대한 복지 목표의 한 부분으로 다루었다(Svensson and Gunnarsson, 2012; Karlsson and Wikstrand, 2017). 결과는 1970년대는 1960년대를 기반으로 양성평등 가족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가치, 권리, 의무에 대한 논의가 표면화되었으며,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담론이 형성 되었다. 개별세가 도입되었으며 아동양육은 사회화되었다(Karlsson and Wikstrand, 2017).

1980년대 평등 옴브즈만(Equality Ombudsman)이 설립되었다. 이 기구는 편향적이고 성차별적 노동시장을 방지해주는 역할이었다. 직장여성들은 성차

4) [https://en.wikipedia.org/wiki/Feminism\\_in\\_Sweden](https://en.wikipedia.org/wiki/Feminism_in_Sweden)

별 금지를 보장받았으며 고용주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평등하게 처우해야 할 것을 요구받았다. 또한 이시기부터 젠더 평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논의의 초점은 권력과 여성 직업의 재가치화, 여성의 대표성에 관해서였다. 미디어에서 여성의 성차별화(sexualization)에 대한 이슈가 뜨거운 감자가 되었으며 강간과 차별에 대한 법이 강화되었다. 또한 이시기 젠더 연구가 하나의 학문 분야로 자리를 잡았다. 2000년대 권력과 미디어의 성차별화가 주요 이슈가 되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주요 이슈였다. 개별화된 부모 급여, 급여에 관한 노력, 작업장에 대한 엄격한 요구 등 도 주요 이슈가 되었다(Karlsson and Wikstrand, 2017). 결론적으로 2차 페미니스트 운동이 일어났던 시기에 많은 여성들이 공적인 영역이 정치와 경제, 사회분야에 정치세력화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시기를 스웨덴이 페미니스트 국가로 변모하는 시기로 평가받는다(Schar, 2018).

3차 페미니스트 운동은 미투운동이었다. 2017년 미국의 모 유명 여배우의 폭로로 시작된 소셜미디어 방식의 이 운동은 스웨덴 여성계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스웨덴도 80개 이상의 여성 조직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계기를 가져왔으며 해시태그 운동을 통해 이들의 고충을 노출시키고 목소리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중요한 점은 여기의 출발점이 바로 영화산업의 여성 종사자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여배우들은 대중매체를 통해 영화 미디어 산업계에 은폐된 성적 불평등을 드러내었다, 여배우들은 “Tystnad Tagning(침묵행동)”의 구호 아래 극장과 영화 산업의 전문분야에 있는 종사자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이는 오페라, 요식업, 공장, 보건케어 전문가, 법률분야,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로 퍼져 나갔다(Hedin and Lane, 2020).

미투운동은 스웨덴 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세계적으로 양성 평등 국가로 알려진 스웨덴에서도 은폐된 성폭력이 심각하다는 것은 다른 국가들보다 더욱 충격적 이었다. 2014년 이후 페미니스트 정부를 세계 최초로 표명하고 페미니스트 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페미니스트 국방부 장관이 임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미투운동은 스웨덴 정부를 재평가하는 계기를 가져왔고 시민당 정부가 다시 한 번 각성하게 되었다. 스웨덴 정부는 미

투운동 이후 이전 보다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사실 스웨덴 정부는 지난 20여 년 동안 성범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피해자 중심의 제도를 만들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2차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과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그간 성범죄와 관련된 형사 재판 과정의 절차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도 있었다. 형사 재판체계에서 성폭력은 입증하지 못하면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 성폭력은 비공식 영역에서 은밀히 일어나는 것으로 법정 발언이 모호성이 많이 때문에 재판과정에 여성의 목소리가 무시되는 경향이 많았다. 미투운동 이후 스웨덴 정부는 성범죄 법안과 관련해서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라는 범조항을 만들기 위해 국회에 안건을 올리고 여기에 반대하는 단체에 압력을 가하였다. 그리고 양성평등을 위한 사회적 담론을 구성하였고 결론적으로 법안이 만들어졌다.<sup>5)</sup> 즉 미투운동으로 공적인 분야의 모든 여성들이 연대했으며, 이런 권력형 성폭력을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정치적인 해결을 요구하였다. 결과적으로 영화계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 가해자들이 공식적 영역에 몰려났으며, 성관계 동의 법이 만들어지면서 당사자 간에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으로 간주되면서 여성의 권익이 제도적으로 향상되었다(홍세영, 2018).

### 3.2 여성영화종사자의 정치세력화 과정

여성영화종사자의 정치세력화 과정은 2차 여성운동이 발생한 시기인 1970년대부터이다. 이 시기부터 여성영화종사자는 필름 속에 여성의 이미지를 의문시하였으며, 조직화나 단체를 결성해서 여성의 권력자원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1977년 스웨덴 여성 영화 조직(Svenska Kvinnors Filmförbund; SKFF)이 창설되었고 이 조직을 중심으로 영화산업 분야에 양성평등을 위한 정치적 세력화를 모색하였다. SKFF는 영화산업이나 독립된 영화 분야에 종사하던 여성들 즉 시나리오 작가, 감독, 배급사, 기술적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SKFF는 여성 영화인을 지원하여 여성에게 영화제작의 기회를 강화시켜주는 것이 목적이였다.<sup>6)</sup> 이 조직은 인근 노르딕 국가나 서유럽과 같은 다

5) <https://www.europenowjournal.org/2020/03/09/saying-metoo-in-the-swedish-legal-system-the-importance-of-believing-women/>

른 나라에 영감을 불러 일으켰다. 그리고 이 시기 여성의 경험을 영화 속에 묘사되어야 하며 여성영화가 일반여성들의 일상생활을 스크린 속에서 보여줘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1980년대에는 필름 속에 여성의 이미지에 대한 페미니스트 담론이 변하기 시작하였다. 즉 여성을 표준화된 범주로 단순한 방식으로 정의내릴 수 있는지 그리고 여성 영화 제작자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들을 제기하였다(Jansson, 2017a).

이처럼 여성제작자들은 1975년 이후부터 조직하여 영화산업 분야에 양성평등을 위한 정치적 노력을 했지만, 정부는 1990년대 이르러서야 영화계의 양성평등 논의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는 페미니스트들은 여성 정치인의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활발하게 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1991년 총선에서 정당을 결성하기 위한 페미니스트 네트워크(Stödstrumporna)는 다른 정당들에게 위협적인 존재였고 사민당은 국외 의석에 여성과 남성이 50: 50이 될 수 있도록 할당제 도입을 제시하였다. 스웨덴 정부 법안 텍스트에서 처음으로 여성이 언급된 것은 1993년 SKFF의 측에 대한 응답에 있었다. SKFF는 전체 영화 제작자의 9%만이 여성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여성의 비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특별 지원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993년도 여기에 대한 반응으로 처음으로 정부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었다(Jansson, 2017a). 그리고 1999년 처음으로 영화계에 양성평등을 다루기 시작하였다. 여성할당제 도입을 두고 영화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근로조건이 더 개선되며 다양한 여성들의 경험을 영화에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였다(Jansson, 2017b).

2000년대 진입하면서 영화산업에서 주요 의사결정 주체가 남성 지배적이고 여성의 비율이 적다는데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정부는 영화산업에 양성평등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성인지 통계(Gender Specific statistic)를 생산하여 스웨덴 필름기관(the Swedish Film Institute; SFI)에서 기금을 지원받는데 성별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였다(Jansson, 2017a). 그리고 정부가 영화산업 분야에 양성평등 개선을 위한 SFI 에 대한 책임을

6) [https://sv.wikipedia.org/wiki/Svenska\\_Kvinnors\\_Film%C3%B6rbund](https://sv.wikipedia.org/wiki/Svenska_Kvinnors_Film%C3%B6rbund)

지고 있었지만 2006년까지 목표로 설정되지는 못했다(Jansson, 2017b).

2006년 영화협정에서 양성평등을 위한 목표가 만들어졌다. 스웨덴 영화협정(Film Agreement)에 만들어진 스웨덴만의 독특한 제도로 영화생산을 위한 공적 자금을 이한 지침이나 목적을 협상하는 주요 메카니즘이다. 협상은 정부, 영화산업의 극장 소유주, 배급사, TV 회사 등이 참여한다. 2006년 협정에서 감독, 시나리오 작가, 제작자 등 주요 직책 중 여성이 40%가 되도록 하는 것이었다(Jansson, 2017b). 이후 예산의 비율을 증가시켜 여성의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 스웨덴 정부는 2020년 까지 각본가, 감독, 제작자를 양성하기 위해 여성과 남성 사이에 50:50으로 동등한 공적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목적은 성공적으로 달성되었으며, 여성의 잘못된 개념을 수정하고 양성평등을 가로막는 논쟁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영화 속의 복구 여성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젠더의 고정관념을 탈피하려는 시도도 하였다. Moviement 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 영화제작자의 리더십과 직업 전략을 양성하였다(Unesco, 2019).

참고로 SKFF는 스웨덴 위프트(Wift Sverige)에 2003년 편입되었다. 2003년 영화와 텔레비전 여성 조직인 스웨덴 WIFT(Women in Film and TV; WIFT)가 결성되었다. 이 조직은 1970년대 미국 LA 지역에서 영화산업에서 여성의 비율이 부족하다는데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만들어진 조직으로 현재 35개 회원국이 존재할 정도로 국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Wift Sverige는 정기적으로 회원들과 모임과 행사나 축제를 열기도 한다. 그리고 워크숍, 강의, 상영(screening), 공개행사(showcases)을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미디어 분야에 양성평등을 위한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Wift는 스웨덴 영화축제와 연계하여 세미나와 사회적 행사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Wift Sverige는 두 개의 보고서를 발산하였다. 첫 번째는 여성 영화 제작자에 영향을 주는 구조와 산업의 의사결정에 관한 것이다. 가장 최근 보고서는 평등에 대한 개념으로 평등을 어떻게 정의내리고 여성이 영화를 제작하는데 결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이다. 이는 스웨덴 영화의 정치성에 주목하고 Wift의 의견이 영화정책의 의사결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7)

7) <https://www.wift.se/in-english/>

상기한 것처럼 2017년도 스웨덴에서 여배우들을 선두로 미투운동이 일어났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스웨덴 여배우들은 해시태그 운동 #tystnadtagning (침묵행동)을 통해 시작 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다르게 스웨덴여배우들은 정치적 조직화를 강화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구체적으로 스웨덴은 600명의 여배우들이 연대하였으며 이중 알리사 비칸데르(Alicia Vikander)와 같은 스웨덴 출신의 할리우드(Hollywood) 유명 배우들도 함께 하였다. 스웨덴 여배우들은 공개서한을 통해 자국이 영화와 연극 산업분야에 만연한 성폭력을 비난하였다. 또한 영화계 여성단체는 스웨덴 감독, 제작자, 제작회사가 영화산업분야에 있는 여성들을 성폭력으로 부터 보호하지 못했고 오히려 유명한 가해자로부터 이익을 챙긴 것을 비난하였다. 스웨덴 여배우들은 성폭력과 성 착취에 대한 무관용을 외쳤으며 영화관련 제작사, 극장, 출판사, 방송사의 고용주에게 성폭력의 가해자를 고용하고 이익을 챙기고 이들을 보호하는 행동을 멈출 것을 촉구하였다. 여배우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과 성폭력을 발생시킨 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때 까지 법적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분명히 밝혔다. 그리고 여배우들은 자신의 경험을 온라인에 공개하면서 성폭력의 경험을 공유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익명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다.<sup>8)</sup> 이는 성폭력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성폭력의 원인을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이런 연대는 스웨덴 영화산업 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스웨덴 영화진흥원은 영화진흥기금을 신청하는 모든 제작사에 의무적인 성행위 교육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sup>9)</sup>

미투운동 이후 스웨덴 정부와 양성평등 부는 성폭력이 발생하는 전반적인 측면 즉 성폭력 발견, 해결, 예방, 보편화하기 위한 업무를 착수 하였다. 그리고 양성평등 부서에 특별한 임무가 부여 받았다. 바로 양성평등 사회교육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이런 교육을 위해 7개의 단편영화를 제작하였다. 이 단편 영화는 미투운동에 취약한 사회복지 대상자들로 성희롱, 학대 및 폭력

8) [https://www.independent.co.uk/news/long\\_reads/silence-action-swedish-stars-confront-sexual-harassment-film-a8058461.html](https://www.independent.co.uk/news/long_reads/silence-action-swedish-stars-confront-sexual-harassment-film-a8058461.html)

9) <https://www.hollywoodreporter.com/news/general-news/how-metoo-movement-is-changing-showbiz-culture-worldwide-1061349/>

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대상인 나이든 여성, 장애인, 약물 남용 여성, 장애인, 매춘 및 인신매매 피해 여성 등에 관해서였다. 이 영화들은 남자들의 여성에 대한 폭력,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성적 취약성 그리고 이중 취약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 이 영화를 통해 성폭력에 취약한 여성들이 각성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의 시발점이 되도록 하였다.<sup>10)</sup>

## 4. 스웨덴 영화산업 여성종사자를 위한 젠더주류화 전략

### 4.1 스웨덴 젠더주류화 전략

#### 4.1.1 페미니스트 정부

2014년에 집권한 사민당 정부는 세계 최초로 페미니스트 정부를 표명하였다. 이 의미는 모든 공공 정책의 중심에 양성평등을 우선적으로 두겠다는 의지이다. 그동안 스웨덴은 양성 평등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실제로 세계에서 모범이 될 정도로 많은 결실을 이루었다. 그러나 여전히 스웨덴에서 남녀 불평등은 존재하고 있었다. 사민당 정부는 여기를 원인을 권력 자원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다.<sup>11)</sup>

스웨덴 정부에 따르면 양성평등 한 사회는 인권이자 민주주의와 정의의 실현으로 이를 위해 여성과 남성은 사회와 자신의 삶에 권력을 가져야 하고 개인의 잠재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스웨덴 정부는 정책 아젠다를 통해 불평등한 성역할과 구조를 개혁할 의지를 표명하였고 양성평등을 모든 의사결정과 자원 할당에 중심에 두기로 하였다. 여기에는 여성의 정치세력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sup>12)</sup><표 1참조>.

10) <https://www.jamstalldhetsmyndigheten.se/en/metoo>

11) <https://www.government.se/feministgovernment>

12) <https://www.government.se/feministgovernment>

스웨덴 정부는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젠더주류화 전략을 채택하였다. 유럽의회에 따르면 젠더주류화 전략은 정책 입안과정과 관련하여 모든 정책 영역, 모든 수준, 모든 단계, 양성평등 관점을 내포하는 것이다(Government Office Of Sweden, 2019). 젠더주류화전략은 모든 과정에 양성평등 관점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양성평등을 구현하기위해서 다양한 정책적 제안과 결정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정책 설계에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다.<sup>13)</sup> 이런 젠더주류화 전략은 스웨덴은 페미니스트 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집권 중이었던 중도 우파 정부는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젠더주류화를 위한 정부개발 프로그램(The Government's development programme for gender mainstreaming in government agencies; GMGA)을 만들어 국가적 양성평등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기관의 경우 2013년부터 2021년 현재 60개에서 젠더주류화전략을 수행하고 있다.<sup>14)</sup>

<표 1> 스웨덴 페미니스트 정부의 양성 평등 정책 목표

목표	내용
권력과 영향력의 동등한 배분	여성과 남성은 적극적 시민으로서 의사결정 조건을 구성하는데 동등한 기회와 권리가 있음.
경제적 평등	여성과 남성은 경제적으로 독립적 삶을 향유하기 위해서 유급노동에 대한 동등한 기회와 조건을 가져야 함.
평등한 교육	여성과 남성, 소녀와 소년은 교육, 연구, 개인적 개발과 관련하여 동등한 기회와 조건을 가져야 함.
무급 가사노동의 동등한 분배와 돌봄	여성과 남성은 가사 노동에 대한 동등한 책임이 있으며, 평등하게 돌봄을 주고받아야 함
평등한 건강	여성과 남성, 소녀와 소년은 좋은 건강을 위한 평등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평등하게 돌봄을 제공받아야 함.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 방지	여성과 남성, 소녀와 소년은 신체적 통합에 대한 동등한 권리와 기회가 있음.

자료: 스웨덴정부 홈페이지<[www.government.se/feministgovernment](http://www.government.se/feministgovern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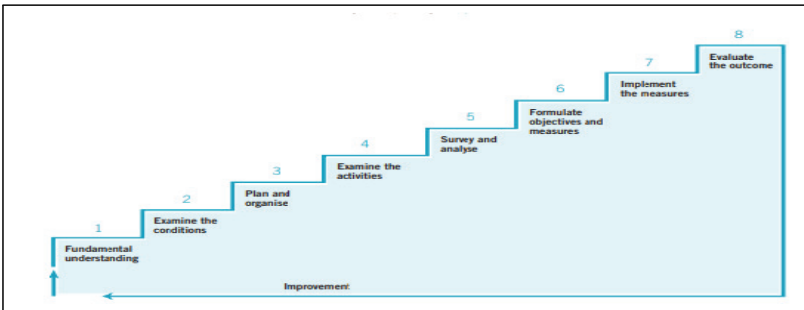
13) <https://www.jamstalldhetmyndigheten.se/en/gender-mainstreaming/gender-mainstreaming>

14) <https://www.government.se/articles/2020/04/gender-mainstreaming-in-government-agencies/>

### 4.1.2 젠더주류화 지원 위원회(JämStöd)

2005년 젠더주류화 지원 위원회(JämStöd)는 국가 젠더주류화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 위원회는 정부기관들이 양성평등을 수행하는 책임 정도를 보고하고 젠더주류화 방법을 개발하고 기관의 경험을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JämStöd에서 개발하는 실무 모델과 방법은 스웨덴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회원국과 같이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sup>15)</sup> 젠더주류화 전략으로 JämStöd에서는 젠더주류화 매뉴얼을 발간하고 있다. 이 매뉴얼은 ‘사다리 모델(Ladder Model)’로 장기 전략을 단계적으로 세우면서 지속가능한 젠더주류화 전략을 수행하고 있다. 이 모델은 젠더주류화 과정의 모든 단계를 점검하고, 조직 속에 수행된 업무들과 요구된 것들을 살피고, 과정의 다양한 단계 속에 방법들을 모색하고, 업무가 어떻게 수행되는지 인식과 조직의 현재 상황에 대한 공통된 관점을 모으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Swedish Government Official Reports, 2007).

<그림 2> 젠더주류화 단계적 전략 과정



자료: Swedish Government Official Reports(2007), Gender Mainstreamin Manual. p.9

총 8단계로 이루어져있으며 이론, 기획, 평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초에서 심화단계로 이어지고 있으며 각각 단계별로 인과성을 가지고 있

15) <https://eige.europa.eu/gender-mainstreaming/resources/sweden/jamstod-och-jamstods-praktika-metodbok-jamstalldhetsintegrering>

는 논리모델에 기반하고 있다. 이론은 1단계 기초단계로 젠더주류화에 대한 기초 개념을 학습하는 단계이다. 2단계~ 6단계는 기획단계로 상황조사, 계획과 조직화이며, 7단계는 수행이며 8단계는 평가와 사후관리로 구분되어 있다. 젠더주류화 전략을 받아들인 정부기관은 이 매뉴얼대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4.2 스웨덴 여성영화인권제도를 위한 젠더주류화 전략

### 4.2.1 성별 영향 평가: 벡델 테스트(Bechdel test)

스웨덴 영화산업 분야에서 성별영향 평가로 벡델테스트가 있다. 벡델 테스트는 1985년 미국의 만화가 알리스 벡델(Alison Bechdel)이 자신의 만화 “Dykes to Watch Out For”를 통해 개념을 소개한 것이다. 벡델테스트는 30여 년 이상 영화 속의 성별영향 평가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스웨덴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벡델테스트는 단순히 3개의 질문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바로 ‘두 명 이상의 여성이름을 가진 배우가 등장하는가?’, ‘그들 서로 대화를 나누는가?’, ‘남자 이외의 다른 화제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가?’이다.<sup>16)</sup>

위의 3개의 질문을 통해 영화 속에 여성 편견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 하며, 결과는 등급으로 매겨진다. 벡델테스트의 목적은 영화의 품질을 평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 속에 여성의 이야기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여성의 관 점으로 영화가 만들어졌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최고의 등급은 A 등급으로 미디어 속에 여성이 어떻게 비춰지는지 보여주면서 양성평등을 개선하는 효과 있다.<sup>17)</sup> 평가지표로 단순하고 불완전하다는 한계가 있지만,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여성 영화계에서는 이 테스트는 젠더 진보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스웨덴에서 벡델테스트를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

16) <http://www.a-listfilm.com/>

17)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3/nov/06/swedish-cinemas-bechdel-test-films-gender-bias>

를 보이고 있다. 첫째 벡델테스트에 통과되는 영화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2013년 스웨덴 장편 영화의 30%에서 2014년 60%로, 2015년에는 80%의 영화가 A등급을 받으면 벡델테스트를 통과하였다. 다음으로 A 등급을 받은 영화는 스웨덴의 30개의 영화관에서 상영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영화가 시작되기 전 영화 홍보를 할 수 있으며 DVD 표지에도 A 등급을 표시해두어 홍보 효과를 높이고 있다. 세 번째로 스웨덴 학교에서는 젠더와 이주민 등 다양성과 관련하여 벡델테스트의 교육을 받게 되었다. 네 번째로 이 테스트를 통해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증가시키고 있다.<sup>18)</sup>

#### 4.2.2 성인지예산

성인지 예산(Gender-responsive budgeting)은 젠더주류화전략의 하나로 스웨덴 페미니스트 정부가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것은 젠더에 기반을 둔 예산 평가는 모든 수준에서 젠더관점을 예산책정에 투여하고 양성평등 달성을 위해서 수입과 지출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Government Office Of Sweden, 2019).

영화산업분야에 양성평등을 높이하고자 하는 주요 주체는 정부였다. 정부는 2000년에 양성평등 개선을 위한 업무는 정부의 주도 하에 2006년 협정에서 감독, 제작자, 시나리오 작가 등 영화의 핵심적 지위에 40% 이상 차지해야 한다는 것을 협의하였다. 그리고 2013년 약간 수정되어 기금은 여성과 남성 사이 동등하게 배분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젠더 평등은 위원회의 교육에 양성평등을 추가함으로써 개선될 수 있었다(Jansson, 2017a).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할당제 목표는 감독, 제작자, 시나리오 작가 등의 직업을 가진 여성의 수는 증가하였다. 2001년에서 2006년 사이 위원회의 지원을 받은 영화와 영화제작에 주요 위치에 있는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4%에서 35%사이였다. 2007년부터 2010년 사이에는 31%에서 46%였다. 위원회로부터 받아 만든 여성감독의 영화의 수는 2015년에는 전체 57%로 가장 높았다(Jansson, 2017a).

18) <https://womenandhollywood.com/what-happened-after-swedish-theaters-introduced-a-bechdel-rating-for-its-movies-61b018e823f4/>

### 4.2.3 성별 분리 통계

스웨덴에서 통계 생산은 마케팅, 사회조사, 여론 조사 등을 목적으로 국제적 기준에 따르고 있다. 통계 생산은 탈중양화되어 있어서 여러 전문분야에 다양한 기관들이 통계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공식 통계는 정부 기관에서 생산한 통계만 인정하고 있다. 스웨덴 공식 통계 시행령 제 14조 (Section 14 of Official Statistics Ordinance, 2001; 100)에 따르면 통계청은 성별분리 통계 생산해야 한다. 이 조항은 1994년부터 개인과 관련된 공식적 통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별로 분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러 기관에서 현재 성인지 통계 작업은 필수 조건이다. 스웨덴 통계청(Statistics Sweden)은 성별분리 자료 생산을 위한 특수한 단위(unit)를 가지고 있다. 이 제도는 1983년부터 시작되었으며 1994년부터 법적 의무가 되었다. 국가 젠더 통계는 인구, 보건, 사회 돌봄, 교육 연구, 시간 사용, 부모보험, 무급노동, 소득 발생 고용, 임금, 소득, 영향력과 권력, 범죄 등이다. 각 지표에는 젠더 평등 목표의 6개가 설정되어 있다. 스웨덴 통계청의 양성평등 웹사이트에서 모든 국가적 수준에서의 성별 분리 통계를 보여주는 172개의 표를 제시하고 있다. 통계는 매년 두 번 업데이트 된다. 스웨덴 통계청은 2년에 1번씩 “스웨덴에서 여성과 남성, 사실과 특징”을 발행하여 양성평등 개발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지방적(regional)·지역적(local) 수준에서도 마찬가지이다.<sup>19)</sup>

영화산업 분야에서도 성별을 구분하여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 통계는 영화산업 분야에 양성평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사용된다. 예를 들면 여성영화 할당제 50:50을 목표로 설정한 이후 2006~2012년 사이는 35%, 2012~2016년 사이 49%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제도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기초통계로 사용되었다.<sup>20)</sup> 각본가, 감독, 주연, 제작자 등 성별분리통계를 통해 영화산업의 양성평등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그리고 스웨덴 영화 협약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 협약당시 2012년과 2016년 사이 남성은 스웨덴 영화산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을 수치로 보여주었다.<sup>21)</sup>

19) <https://eige.europa.eu/gender-mainstreaming/countries/sweden>

20) <https://en.unesco.org/creativity/policy-monitoring-platform/gender-equality-film-industry#:~:text=The%20objective%20was%20successfully%20achieved,for%20the%202006%2D2012%20period.>

## 5. 논의

스웨덴 미투운동은 세계적인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 그 이유는 미투운동 이후 스웨덴 여성들은 강력한 정치세력화가 이루어졌고 스웨덴 정부가 각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미투운동 이후 스웨덴 정부는 성범죄에서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는 모두 강간에 해당된다는 법 규정을 만들어 냈으며, 성폭력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시켰고, 공적인 담론을 더욱 증가시켰다. 스웨덴 미투운동은 영화산업 분야에서의 여배우들의 정치세력화를 선두로 법조계, 학계, 문화 예술계 등 전 분야로 확대되었다. 영화산업계에서 유명 여배우를 중심으로 연대하였으며 이들은 공개적으로 성폭력의 경험을 공유하고 성폭력 근절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었다. 스웨덴에서 여배우들이 이런 활동이 가능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제도화된 여성의 권력자원과 국가 주도의 젠더주류화 전략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스웨덴 여성영화종사자들의 인권제도를 권력자원론과 젠더주류화전략에 기반하여 탐색하였다.

제언은 다음과 같다. 한국 여성계에서는 스웨덴 여성의 권력자원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한국의 미투운동은 사회적 이슈로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회적 담론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법안이나 정책 등과 같은 제도화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반면 스웨덴은 한국과 다른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는 여기에 주목하였다. 한국과 스웨덴은 같은 현상을 두고 다른 결과를 만들었다. 즉 한국은 사회적 관심을 끌었지만 여성의 인권제도의 확대를 가져오지 못했다. 반면 스웨덴은 사회적 관심을 넘어 정치세력화, 그리고 제도화시켜 양성평등 정도를 더욱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스웨덴은 여성과 남성간의 구조적 불평등을 권력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사회구조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제도화된 권력관계는 임금, 승진, 법 등 다양한 공적 관계의 여성 차별로 이어지고, 나아가 성폭력이라는 극단적 상황까지 보여주고 있다. 이러

21)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1051203/gender-distribution-in-cinema-movies-in-sweden-by-job-type/>

한 권력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권력자원이다. 여성과 남성이 어떤 자원을 얼마나 소지하느냐에 따라 권력의 양상이 달라진다. 권력자원은 여성의 정치세력화, 법, 정책 등이 있다. 한국에서 우리사회에 적합한 여성의 권력자원을 형성하고 제도화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한국의 여성조직들은 여성연대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여성연대는 여성의 정치세력화의 핵심 도구이다. 스웨덴 여성의 권력자원 형성의 주요 도구는 정치세력화로 190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다. 1차에서 3차까지 이어지면서 여성의 시민권 획득은 물론 양성평등 사회로 나아가는데 기여하였다. 영화산업분야에서는 2차 페미니스트 운동 시기인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여성영화 조직을 만들고 여성의 관점이 반영된 영화들을 제작할 수 있도록 정치세력화가 이루어졌다. 정치세력화의 시작은 연대이다.

여성연대는 연성파워(soft power)이다. 권력자원의 핵심이 수의 정치이듯 여성 연대는 수를 증가시켜 하나의 강한 목소리를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성폭력은 개인적이자 정치적인 문제이다. 그리고 성폭력은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한 개인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다. 한국의 경우 미투운동 이후 많은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지만 법안이나 정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결국 일부 가해자의 처벌이나 자살 등 개인적인 차원에서 마무리 되었고, 2차 피해자 발생하는 등 사회적 보호가 없었다. 이와 반대로 스웨덴은 개인적인 피해보다는 사회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었다. 스웨덴 여성영화종사자들은 연대하여 공개적으로 영화산업계의 불평등한 성차별과 성폭력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결과적으로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여성의 관점이 반영된 영화를 제작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다음으로 실질적인 젠더주류화 전략이다. 한국에서도 젠더주류화 전략을 채택하고 있지만 스웨덴과 비교할 때 가시적인 성과가 높지 않다. 그리고 한국의 영화산업분야에서는 젠더주류화 전략을 수행하지 않는다. 스웨덴 영화산업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성폭력이나 성차별이 심각하게 존재하는 분야였다. 그런데 스웨덴 정부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영화산업 분야에 젠더주류화 전략(Gender Mainstream)을 통해 양성평등 정도를 높였다. 젠더주류화는 국제적인 젠더 패러다임으로 양성평등 건설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

다. 즉 젠더주류화는 여성과 남성 간에 차별을 막고 평등을 높이기 위해 비용, 규정, 정책평가, 정책설계 및 수행 등 전반적인 분야에 젠더 관점을 통합시키는 것이다.<sup>22)</sup> 스웨덴 여성영화산업 종사자는 젠더주류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채택하여 영화산업 계에 양성평등 정도를 높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벡델테스트를 통해 영화 속에 여성적 관점이 반영되었는지 평가하여 많은 영화 속에 젠더적 관점에 기반한 여성이야기가 나올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여성영화인에게 성인지 예산을 부여하여 영화산업계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50:50이 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정부적 차원에서의 성별 분리 통계를 통해 젠더적 관점에서 여성영화인의 정책을 구축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영화산업계에 개입하여 성주류화전력을 수행하고 여성영화종사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

22) <https://eige.europa.eu/gender-mainstreaming/what-is-gender-mainstreaming>

## 《참고문헌》

### 1. 국내자료

- 김경희·최혜진(2013). “선진국 담론과 전환적 성 주류화?”. 『한국정치학회보』, 47(3), 169-189.
- 김동식 외(2019). 『문화예술계 영화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김수완·류연규(2018).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정책 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학』, 34(3), 39-80.
- 이은아(2016). “성 주류화와 성평등 사회구조로의 전환가능성”. 『사회과학연구』, 27(4), 265-288.
- 정인경(2012). “젠더주류화와 여성의 시민권”. 『한국정치학회보』, 46(4), 53-72.
- 최성은·우명숙(2011). “여성복지수준에 미치는 여성의 조직된 힘의 효과 - OECD 국가비교와 한국의 저발전에 대한 함의”. 『한국정책학회보』, 20(3), 263-291.
- 허라금(2008). “여성주의 성평등 개념을 통해 본 성주류화”. 『여성학논집』, 25(2), 45-79.
- 홍세영(2010). 여성의 정치적 세력화와 경제적 지위에 따른 가족정책 형성 과정과 특징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_\_\_\_\_(2018). 스웨덴 여성영화인의 양성평등 정책과 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법학회, no. 35, 61-90.

### 2. 국외자료

- Borchost, A. and B. Siim(1987). *Women and the Advanced welfare state- a New Kind of Patriarchal Power?.* in *Women and the State: The Shifting Boundaries of Public and Private* edited by Anne Showstack Sassoon. London: Hutchinson.
- Government Office Of Sweden(2019). *Gender equality policy in Sweden,*

*Ministry of Employment.*

- Hedin and Lane(2020). *Sexual harassment and whistleblowing in work organizations-has the #MeToo movement changed these processes?*, Conference: Nordic Working Life Conference, 13-15 June 2018, At: Oslo Metropolitan University, Oslo, Norway.
- Hernes, H. M.,(1987). *Women and the welfare state: the transition from private to public dependence.* in *Women and the State: The Shifting Boundaries of Public and Private* by Anne Showstack Sassoon. London: Hutchinson.
- Hobson, B.(1994). *Solo Mothers, Social Policy Regimes and the Logics of Gender.* in *Gendering Welfare States*, edited by D. Sainsbury. London, Sage Publication (한국여성정책연구회 역, 복지국가와 여성정책, 서울: 새물결, 339-362쪽).
- Hobson, B. and M. Lindholm(1997). *Collective Identities, Power Resources, and the Making of Welfare States.* *Theory and Society*, 26(4), 475-508.
- Huber, Evelyne, and John Stephens(2000)., *Partisan Governance, Women's Employment and the Social Democratic Service Stat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5, 323-342.
- Jansson(2017a). *Gender equality in Swedish film policy: Radical interpretations and 'unruly' women.* *European Journal of Women's Studies*, 24(4), 336-350.
- \_\_\_\_\_(2017b). *Rebellion the best cure for obdurate structures? in Looking back and moving forward*, Gender Equality Report 2017 by Karlsson and Wikstrand. Swedish Film Institute.
- Jarvis, S. and Jenkins, S.(1998). *How much income inequality is there in Britain?.* *Economic Journal*, 108(447), 428-443.
- Karlsson and Wikstrand(2017). *Looking back and moving forward', Gender Equality Report 2017.* Swedish Film Institute.
- Korpi. W.(1983). *The Democratic Class Struggle.*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 Esping-Andersen(1999). *Social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Lewis, J.(1997). Gender and Welfare Regimes: Further Thoughts. *Social Politics*, 4(2), 160-177.
- O'Connor, Julia.(1996). From Women in the Welfare State to Gendering Welfare State Regimes. *Current Sociology*, 1-124.
- OECD(2017), Sweden Policy Brief: Inequality. Strengthening The Application of Gender Mainstreaming to the Budget Process.
- Orloff, Ann(1993) Gender and the Social Rights of Citizenship: The Comparative Analysis of Gender Relations and Welfare Stat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8, 303-328.
- \_\_\_\_\_ (1996), Gender in the Welfare State. *Annual Review of Sociology*, 22, 51-78.
- Pedersen, S.(1993). *Family Dependence and the Origins of the Welfare State: Britain and France, 1914-1945*.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insbury(1996). *Gender, Equality and Welfare Stat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har(2018). The Swedish Welfare State and Women:Is Sweden the Feminist Society the United States Imagines?, Augustana Digital Commons Citation.
- SPI(2008). Future Policy and Strategy for Sweden's Film Sectorfor Swedish Film Producers' Association and Film i Väst, Olsberg.
- Swedish Government Official Reports(2007). Gender Mainstreaming Manual.
- Svensson and Gunnarsson(2012). Gender Equality in the Swedish Welfare State, *feminists@law*, 2(1).
- Marshall T. H.(1950). Citizen and Social Class, Cambridge press, 10-74.
- Unesco(2019). A 50/50 gender distribution in Sweden's film industry <<https://en.unesco.org/creativity/policy-monitoring-platform/gender-equality-film-industry>>.

Walby, S.(2001). From community to coalition: the politics of recognition as the handmaiden of the politics of redistribution. *Theory, Culture and Society*, 18(2-). 113-135.

### 3. 인터넷 자료

- <https://eige.europa.eu> <유럽연합 양성평등 조직>
- <https://wikipedia.org> <위키피디아 사전>
- <https://sverigesradio.se> <스웨덴 라디오>
- <https://womenandhollywood.com> <여성과 할리우드 저널>
- [www.a-listfilm.com](http://www.a-listfilm.com) <A 레이트 필름>
- [www.coe.int](http://www.coe.int) <유럽의회>
- [www.euroopenowjournal.org](http://www.euroopenowjournal.org) <유럽 저널 홈페이지>
- [www.government.se](http://www.government.se) <스웨덴 정부 홈페이지>
- [www.nordiskfilmogtvfond.com](http://www.nordiskfilmogtvfond.com) <북유럽 영화와 TV 기금>
- [www.hollywoodreporter.com](http://www.hollywoodreporter.com) <할리우드 리포터>
- [www.independent.co.uk](http://www.independent.co.uk) <영국 인디펜던트 저널>
- [www.jamstalldhetsmyndigheten.se](http://www.jamstalldhetsmyndigheten.se) <스웨덴 양성평등 부>
- [www.kwdi.re.kr](http://www.kwdi.re.kr) <한국 여성정책연구원>
- [www.statista.com](http://www.statista.com) <스웨덴 통계>
- [www.theguardian.com](http://www.theguardian.com) <영국 가디언지>
- [www.unwomen.org](http://www.unwomen.org) <국제연합 여성조직>
- [www.wift.se](http://www.wift.se) <위프트 스웨덴>

<Abstract>

## **A Study on the Human Rights of Swedish Women Film Workers**

Hong, Sae-Young\*

This study explores the human rights system of women film workers in Sweden. Since the Metoo movement in 2017, it has had a huge impact on Sweden and Korea. However, while Sweden has led to institutionalization based on laws and policy related to women's rights, Korea has not. So, the Swedish case needs to be analyzed. For the framework of research, the theoretical background was power resource theory and gender mainstreaming. Power resources theory can explain the unequal relationship between woman and man. The gender mainstreaming is a strategy and key paradigm affecting the women's human rights system. Since 2014 the world's first feminist government has established in Sweden, as gender mainstreaming strategy be carried out in all levels in all areas more actively. It also provided an opportunity for Metoo to bring the Swedish women's organization back together and become a force. Especially in the film industry, actresses played a leading role in the Swedish women's political empowerment. Sweden's film industry produces films with women's perspectives through the Bechdel Test, Gender disaggregated statistic and gender responsible budget with the power of gender mainstreaming, and many women are leading the film industry. However, despite the gender mainstreaming strategy in Korea, it has yet not to be applied in the film

---

\* Social Welfare Department in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nd Administration, Anyang University

industry. Therefore, Korea needs to strengthen women's human rights learning from Swedish Case.

**Key Words: Swedish women film workers, power resources theory, gender mainstreaming, women's political empowerment, human rights for women**

---

성명: 홍세영(Hong, Sae-Young)  
소속: 안양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E-mail: sayoung@anyang.ac.kr

논문 접수일: 2021.06.01.                      논문심사 완료일: 2021.06.20.  
수정원고 접수일: 2021.06.29.              게재 확정일: 2021.07.05.